

이 두 권



이두원 (Doowon)

1982 서울 출생



주요 개인전

2019 황야의 사물, 아트와, 서울
2018 retro+vintage+painting, 맥화랑, 부산
2017 환쟁이두원, 맥화랑, 부산
2016 부전자전, 맥화랑, 부산
2015 Owls in 화원도, 맥화랑, 부산
2015 이두원+아웃사이더아티스트, 갤러리 다운, 서울
2014 공수묵유정만리도, 김리아 갤러리, 서울
2013 이동식 아뜰리에 이주기, 한기숙 갤러리, 대구
2011 무질서 벗 저스트 고, 한기숙 갤러리, 대구
2011 두원산수,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제주
2010 무+질서=우주,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제주
2009 어른화가병 극복기, 3STORY, 서울
2008 슬프게 화가 난다, 갤러리 소굴, 서울

주요 단체전

2019 코리안아이 2020 티저, 사치갤러리, 런던
2019 NOMAD: 이두원 조윤국 2인전, 아트와, 서울
2018 10-100, 행복한 그림전, 맥화랑, 부산
2017 청담동 동물원, 갤러리 두, 서울
2016 Take Five, 맥화랑, 부산
2016 부전자전, 맥화랑, 부산

레지던시

2019 담소 창작스튜디오, 제주
2014 영천 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2011-2010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제주

소장처

사치갤러리, 런던
PCA(Parallel Contemporary Art) 런던
이중섭 미술관, 제주

특별전

2019 STARTnet - 사치갤러리, 런던
2018 아트 부산
2018 화랑미술제
2017 아트 부산
2017 KIAF
2017 화랑미술제
2016 KIAF
2016 어포더블 아트페어
2016 아트 부산
2016 서울오픈아트페어
2015 부산 BAMA
2015 화랑미술제
2014 화랑미술제 - 델리, 인도
2014 아트 광주
2014 컨템포러리 아트페어 - 홍콩
2014 서울오픈아트페어
2014 아트 부산
2014 서울오픈아트페어
2013 KIAF
2013 아트 광주

ARTIST NOTE



나는 대학에서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투적으로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조지아, 치앙마이, 빠이 등 현지에서 구한 독특한 재료와 오브제, 먹 등을 사용하여 보고 느낀 내면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화폭에 담는다.

나에게 작업실은 늘 이동하는 공간이다. 어떤 공간이든 자연이 제공하는 곳은 나의 아틀리에가 되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기운이 나의 작업 동기가 된다. 쉼 울, 헴프천, 네틀, 린넨 등에 그림을 그리고 돌이나 염소 꼬리털 같이 자연의 재료 뿐만 아니라 색이 선명한 울실이나 단추, 벼룩시장에서 구한 골동품 등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을 한다. 재료에는 귀천이 없기에 자연 모든 것은 내게 귀한 재료가 된다.

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곤충 등 자연물과 배, 비행기, 집 등 인공물의 결합은 어떤 어색함과 부조화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물의 관계로 발전한다. 작은 이미지와 반전의 스토리가 잔잔한 웃음을 짓게 하기도 하고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친근한 자연 소재들로 가볍게 풀어내기도 한다. 먹과 색의 조화로 입혀진 소재들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작품을 완성한다.

그리고 내 작품의 핵심은 제목이다. 스토리가 담긴 짧은 제목은 보는 이에게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한국작가 이두원(Doowon), 영국 사치갤러리에서 집중조명

코리안아이(Korean Eye)는 2009년 사치갤러리에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선보이면서 전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글로벌 전시이다. 현재 국내의 가장 핫한 현대미술 작가들 대부분이 코리안아이 출신 작가들로 알려져 있다. 2019년 9월 코리안아이 10주년을 맞아 코리안아이 2020 티저전시가 사치갤러리에서 열렸고, 이두원 작가가 대표작가로 초청되었다.



코리안아이 2020 티저전시 오프닝에서 주최사 대표들, 영국대사와 함께 테이프 커팅 하는 두원 작가



KOREAN EYE 2020: KOREAN CONTEMPORARY ART

코리아아이 2020은 PCA 창립자인 세레넬라 시클리티라(Serenella Ciclitira), 에르미타주 미술관 아시아 디렉터인 디미트리오 제코프 (Dimitri Ozerkov), 사치갤러리 총괄디렉터 필리 아담스 (Philly Adams)가 큐레이팅 하며,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 약 50명을 선정하여 전세계 미술시장에 소개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사치 갤러리에서 티저 전시를 시작으로, 2020년 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거쳐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세계적인 출판사 스키라에서 화집이 출간되어 전세계로 배포될 예정이다.

Korean Eye 연혁

Korean Eye: Moon Generation
Standard Chartered Bank, Seoul, 18-23 May 2009

Korean Eye: Moon Generation
Philips de Pury, London, 20-28 June 2009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Saatchi Gallery, London, 20 June-1 October 2009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Saatchi Gallery, London, 5-25 July 2010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Art House Singapore, Singapore, 12-21 October 2010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SC First Bank Building, Seoul, 1-30 November 2010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Seoul Museum of Art, Seoul, 3-14 November 2010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Korean Cultural Centre, Seoul, November 2010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National Assembly, Seoul, 5-9 September 2011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Museum of Arts & Design, New York, 1 November 2011-19 February 2012

Korean Eye: Energy and Matter
Fairmont Hotel, Abu Dhabi, 18 March-25 April 2012

Korean Eye 2012
Saatchi Gallery, London, 26 July-23 September 2012

Korean Eye 2020 Teaser
Saatchi Gallery, London, September 2019

Korean Eye 2020
The State Hermitage Museum, St.Petersburg, Spring 2020,
Saatchi Gallery, London Summer 2020,
Seoul, South Korea, Autumn 2020



최신기사

'제2 데미언 허스트' 나올까...사치갤러리스 韓 동시대 미술 전시

공유시간 | 2019-09-25 22:27

『코리아아이 2020』 내년 봄엔사 앞두고 韓 작가 11명 티저 전시 열려



『코리아아이 2020』 티저 전시 (왼쪽부터) 한국 현대 미술 작품 11점. 사진은 사치갤러리에서 오는 26~29일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왼쪽부터) 한국 현대 미술 작품 11점. 사진은 사치갤러리에서 오는 26~29일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세계적인 미술흥수집가인 찰스 시치가 1985년 개관한 연간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국제 미술시장에서 급부상한 영국 출신 젊은 작가들(68년의 선두주자인 데미언 허스트를 비롯한 유럽 작가)이 이곳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미술작가를 앞장서는 사치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것은 물론 작품 가격이 '강성' 되는 경향을 한다고 한다.

정기 휴관일인 25일(현지시간) 오전 사치갤러리에 영국 주요 언론 소속 미술 담당 저널리스트들이 속속 집결했다.

10년 전 한국 동시대 미술을 세계에 알리며 주목받은 프록터는 『코리아아이』에 『Korean Eye』 제개를 앞두고 티저 전시 시회 언론 초청 행사도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 사치갤러리스 한국적 정체성 담은 미술작품 선보여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Korean Eye 2020: Contemporary Korean Art)은 한국 신진미술가 30명의 작품을 내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에르미타주) 박물관과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 서울에서 차례로 선보인다. 작가 75명을 소개하는 화집도 유명 출판사 스키라에서 출간된다.

이번 티저 전시는 내년 봄 전시를 앞두고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열리는 스타트 오브페어(START Art Fair)의 일환으로 열린다.

본 전시에는 참여하는 30명의 작가 중 11명의 일부 작품이 26~29일 런던 관람객들을 만치 만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아무런 정두화, 김정희, 김하영, 김문규, 도유희, 이정숙, 김원용, 김병수, 헬레나 피라다, 김 차중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이 포함됐다. 작가들의 개인적인 삶과 경향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면적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이다.

정규 미술교육과정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한 아무런 작가는 이번 티저 전시에 모습을 만든 뒤 휴직을 취하는 예술가(Artist Resting after making his robots) 등의 작품을 내었다.

내년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저동자 레미안 포폴리드 행피안쇼 기념, 자동차 부흥에 포함이 등 한국적 이미지를 그린 뒤 다시 이를 경주용 자동차 모양으로 형상화한 작품도 전시됐다.



정두화, E. 차중재와 헬레나 피라다의 미술 작품 (왼쪽부터)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한국인 어머니와 스웨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헬레나 피라다 김 작가는 어머니의 열병에서 본 독일로 피난한 한국인 간호사 사진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

한국 간호사, 한복, 전통적 제사와 같은 주제에 집중하는 그는 이번 티저 전시에서 '해와 달(The sun and the moon)', '베일(The veil)'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정두화 작가는 종이를 풀풀 밀어 기울고 단단한 소재를 만든 뒤 이것으로 스킵 모양을 형상화한 '사운드(Sound)' 작품을 통해 런던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티저 전시의 별도 사치 갤러리에서 열리는 '스타트 오브페어(START Art Fair)'의 일환으로 박준진 작가와 신미경 작가가 세계적인 혁신리 페넨브로드 롤랑뮤제(Roland Mouret)와 협업을 통해 '스타트 X 롤랑뮤제 특별판'에 참여한다.



『서울드』(Seoul) (왼쪽부터)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는 『코리아아이 2020』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린다.

◇ '음악과 드라마 지우신 한류, 한국 미술로 지평 넓힌다'

『코리아아이』는 약 10년 전 한국을 여행하던 슈퍼갤러리(데이비드-세제넬라 시클리타) 부부가 '뛰어난 영향에도 한국 현대미술을 알리는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다'를 알게 된 뒤 한국 현대미술 소개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START

SAATCHI GALLERY 26-29 SEPTEMBER 2019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매년 열리는 스타트아트페어(START Art Fair)는 세계 각국의 이머징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하여 수준 높은 현대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2019 스타트아트페어에서는 20여개국 50여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사치갤러리는 연간 150만여명이 방문하는 런던의 대표 명소로 현대미술시장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신진작가들에게는 최고의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PRESS

KOREAN EYE: 2020 TEASER

26-29 SEPTEMBER 2019 / SAATCHI GALLERY

코리안아이 2020: 티저전시에서 최종선정작가 50여 명 중 13명의 작가의 작품이 먼저 공개되었고, 작가 이두원은 제일 처음 선발된 코리안아이 2020 1호 작가로 알려졌다. 사치갤러리 총괄디렉터와 주최사 PCA 대표가 현장에서 작품을 소장해가면서 작품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았다.



두원 작가가 사치갤러리 총괄디렉터 '필리아담스(Philly Adams)'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치갤러리 컬렉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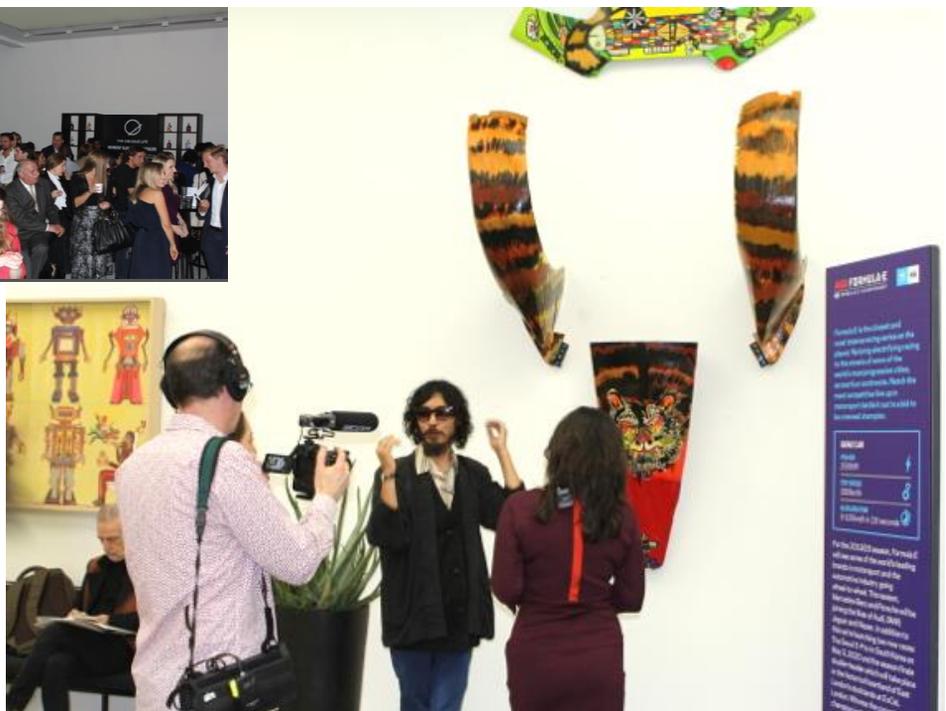
강아지+새+애벌레+풍뎅이(우리 전생애 아마도 로크스타 였나보요), 2014, 조지아산 천 위에 먹, 과슈, 86 x 61cm, 조지아

PCA 컬렉션 2019
앵그리드묘 인 화원도,
2018, 1983년산 종이위에 먹, 아크릴링크, 과슈,
186 x 94 cm



Collaboration

'ABB FIA 포뮬러E 챔피언십 Seoul E-prix 2020'에서 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로 발탁된 이두원 작가가 스타트아트페어(START Art Fair)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경주용 전기차 부품 위에 작가의 개성을 담은 아트 페인팅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SELECTED IMAGES



산중목욕중서든리립도, 2018,조지아군용 캔버스 텐트천에,과슈,잉크,먹,솜울실,임진강들,186x94cm(80호),조지아 ●
 노살생노크라이, 2019타이코튼 위에과슈,먹,아크릴잉크,울실스티치,167x64cm(50호),델리,인도

SELECTE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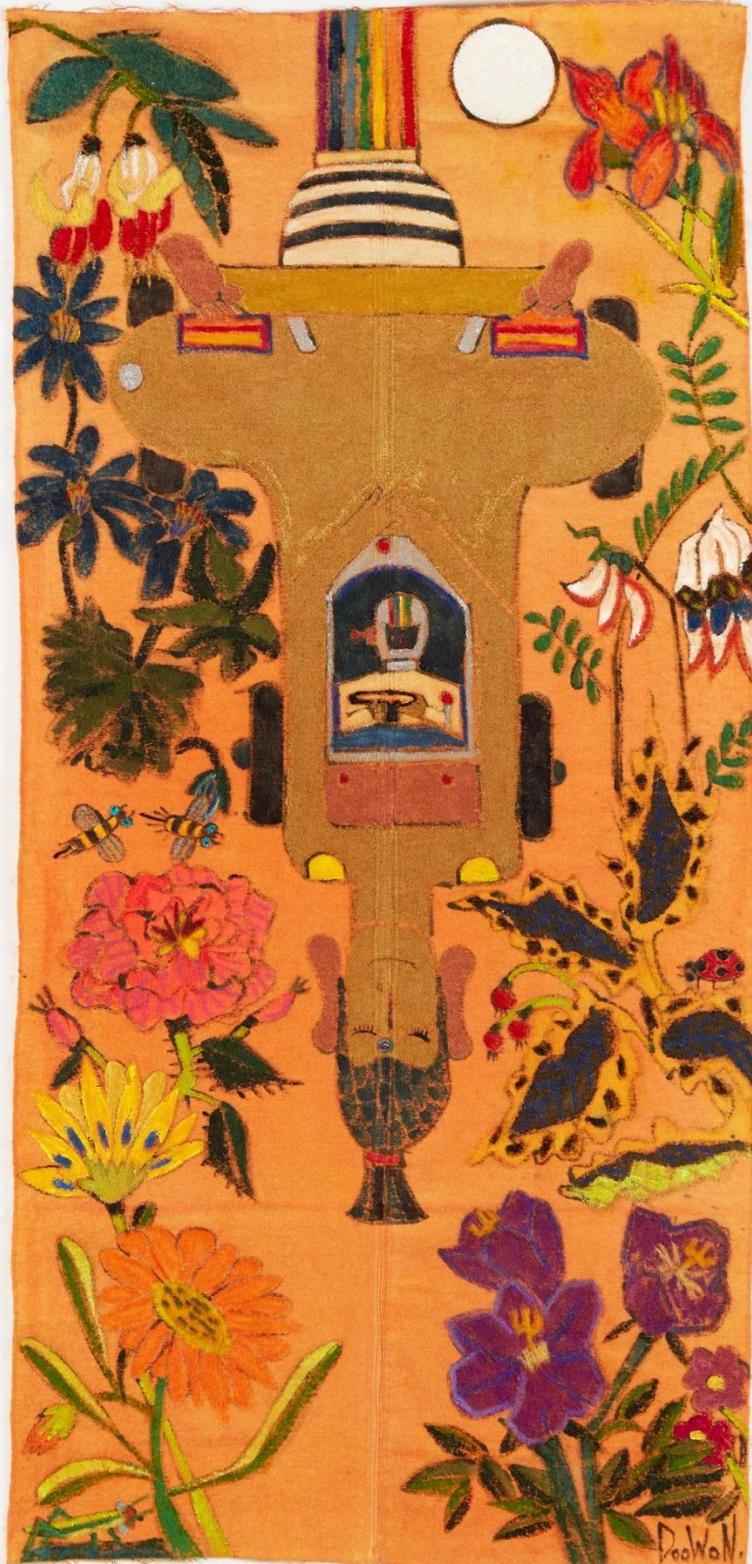
로봇다만든어느화가의휴식, 2019, 두꺼운캔버스에아크릴물감, 잉크, 1192x108cm(60호), 델리, 인도

SELECTED IMAGES



벌꽃는버드레이싱카, 2019, 파키스탄산 울에 혼합재료, 1465x70cm(50호), 제주

SELECTED IMAGES



없을 무(無)를 쫓는 부다레이싱카, 2019, 파키스탄산 울에 혼합재료, 146x70cm(50호), 제주

SELECTED IMAGES



개구리 쫓는 휘시물고기레이싱카, 2019, 파키스탄산 울에 혼합재료, 1465x70cm(50호), 제주

SELECTED IMAGES



커다란로봇, 2020, 파키스탄 솜울, 젝소, 카라치 수성 페인트, 울실, 잼스톤 오브제, 과슈, 오일 파스텔 182x197cm (150호), 제주

SELECTE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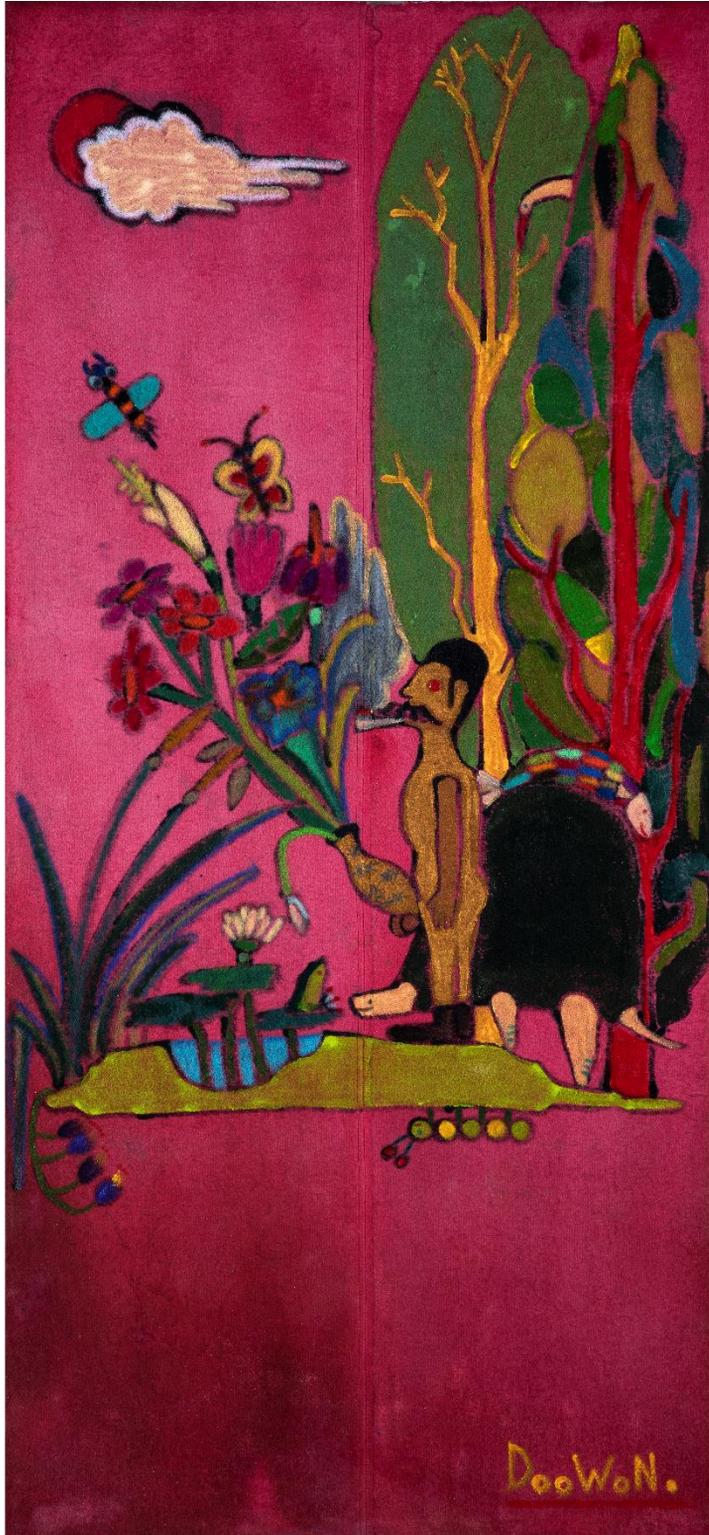
부영이발렛파킹파일럿, 2020, 인도 낙타울에 먹, 과슈, 조지아단추, 오일파스텔, 1405x1163cm(50호), 제주

SELECTED IMAGES



점박이들고양이의개구리요가인화원도,2000,인도 낙타울,먹,카라치수성페인트,울실,조지아단추,과슈,오일파스텔,제주

SELECTE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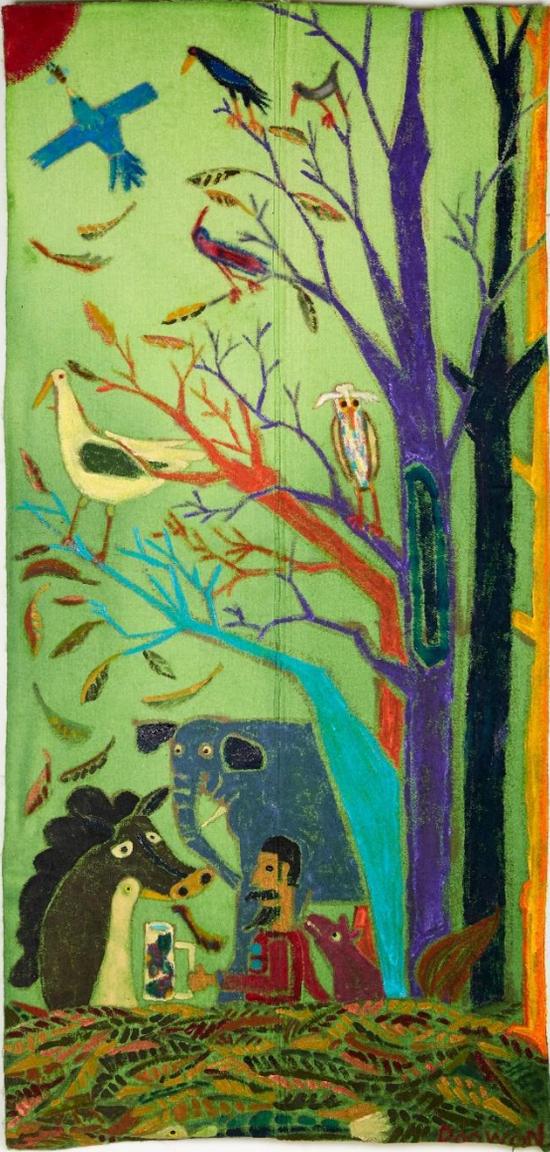
중심, 2019, 파키스탄 울에 먹, 카라치 산수성 페인트, 오일 파스텔 과슈, 조지아 단추 149x703cm(50호), 제주

SELECTED IMAGES



슬픔그리고고귀함, 2019, 파키스탄 울에먹, 카라치 산수성페인트, 잼스톤 오브제, 아크릴릭 링크, 오일 파스텔, 과슈, 68.9x144.8cm (50호), 제주
중심, 2019, 파키스탄 울에먹, 카라치 산수성페인트, 잼스톤 오브제, 아크릴릭 링크, 오일 파스텔, 과슈, 69.5x148.2cm (50호), 제주

SELECTED IMAGES



낙엽, 2019, 파키스탄 울에먹, 과슈, 잉크, 오일파스텔, 잼스톤 오브제, 1425x69cm(50호), 제주

블랙스완, 2019, 파키스탄 울에먹, 카라치 산수성 페인트, 잼스톤 오브제, 아크릴릭 잉크, 오일파스텔, 과슈, 1425x69cm(50호), 제주

SELECTE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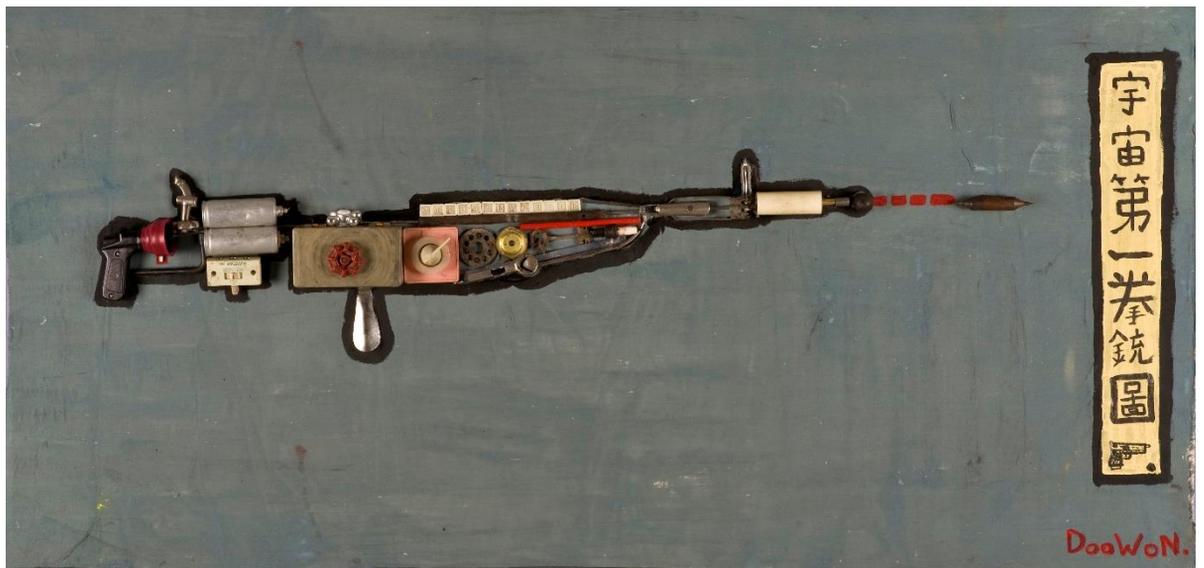
칼라풀수염부엉이, 2013, 인도산카디위에 먹, 과슈, 오디오스피커, 나무자, 244x145cm (150호), 조지아

SELECTED IMAGES



묵색종마도, 2013, 조지아산아사천위에 먹, 빗자루, 주사기, 돋보기렌즈, 방독면뚜껑, 붓, 137x139cm(80호), 조지아

SELECTED IMAGES



기계적들개질주, 2013, 조지아산 캔버스에 혼합재료, 768x145cm(50호), 조지아
우주제일권총도, 2013, 조지아산 아사천 위에 정크오브제, 1763x885cm(80호), 조지아

SELECTED IMAGES



백야버드야간비행도, 2017, 크래프트지에오일색연필, 207x118.7cm(4pcs), 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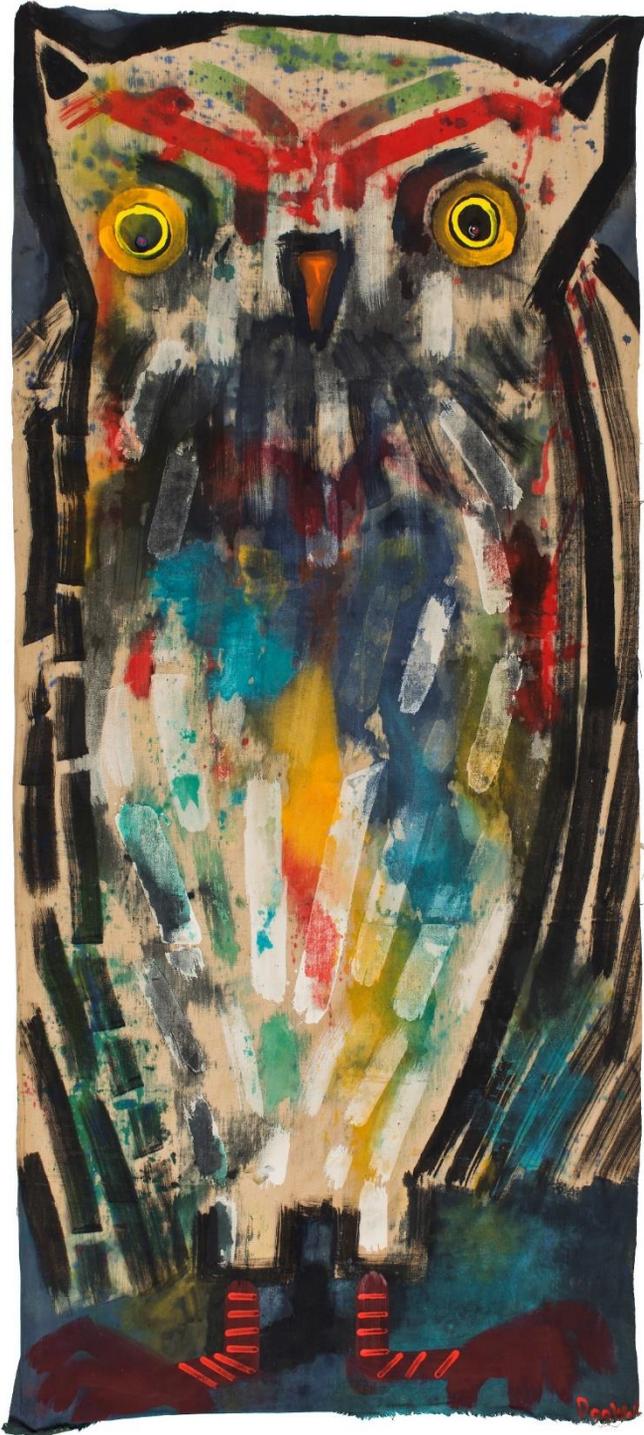
풀숲에서벌레사냥, 2018, 크래프트지에오일색연필, 89.4x21cm(3pcs), 연천

SELECTED IMAGES



내고추는사워기, 2013, 아사천위에 먹, 과슈, 정크오브제, 184x119cm(100호), 조지아

SELECTED IMAGES



다색부엉이도, 2016, 태국산 면천 위에 먹과 혼합재료, 90x198cm(80호), 뽀이, 태국
Owin 회원도, 2017, 파키스탄산 쉬울에 먹, 과슈, 오일파스텔, 123x36cm(20호), 연천

SELECTED IMAGES



당나귀와아버지와나,2013,조지아산텐트용천위에먹,과슈,오브제,91x169cm(80호),조지아
괴수사냥도,2013,조지아산아사천위에먹,과슈,실,오브제,150x185cm(120호),조지아

SELECTED IMAGES



어느 야수의 새구경, 2019, 아사천에 먹, 오일파스텔, 아크릴릭인크, 과슈, 77x125cm(60호), 미안마 ●

조화충도, 2019, 낙타울에 혼합재료, 602x140.5cm(60호), 미안마 ●

SELECTED IMAGES



백야간BIRD폭풍야간비행도,2018,파키스탄산울위에유화,174x148cm(120호),한국 ●

SELECTED IMAGES



꽃담배도, 2016, 태국산코튼위에과슈, 먹, 50.5x95cm(20호), 뽀이, 태국

다색BIRDS수초밀림도, 2013, 험프천에과슈와먹, (60호), 조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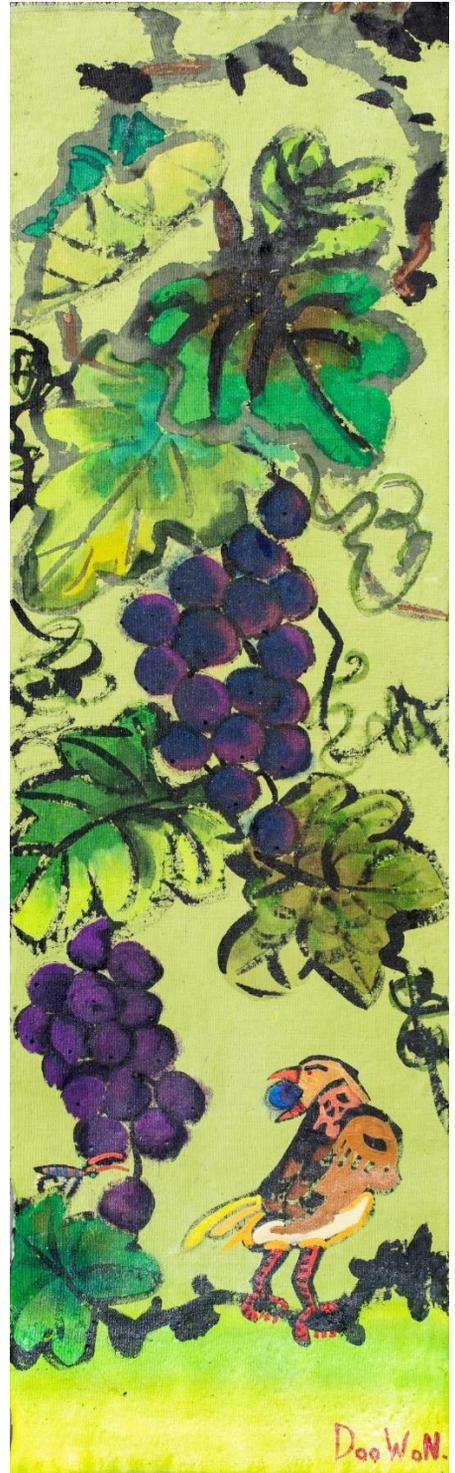
SELECTED IMAGES



호접지몽도, 2018, 아사천에아크릴릭잉크,과슈,먹, 90x127cm(50호), 한국 ●

호접춘몽도, 2018, 아사천에아크릴릭잉크,과슈,먹, 128x179cm(50호), 한국 ●

SELECTE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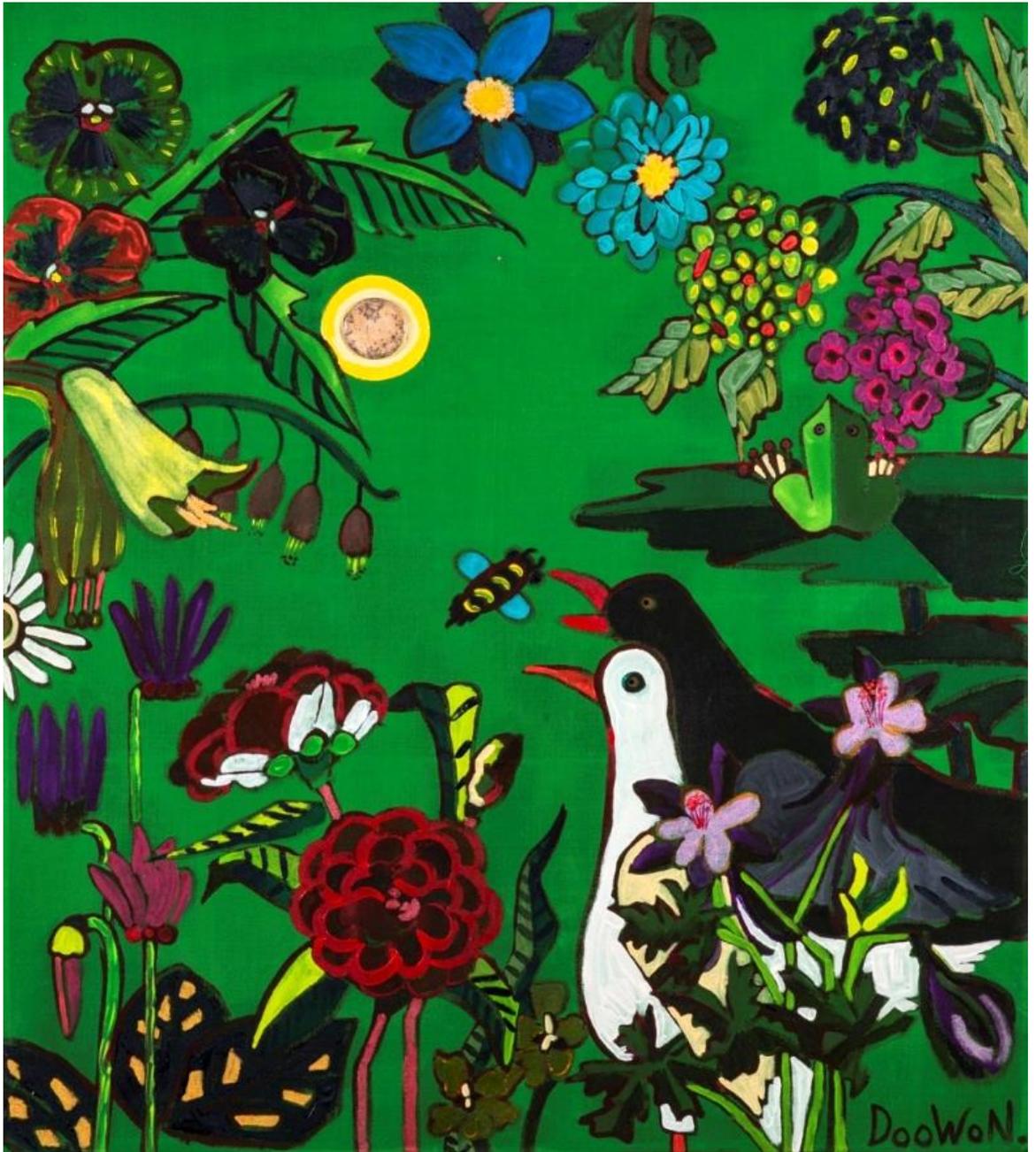


고목나무부엉이, 2016, 탕화지위에 먹, 아크릴(이두원, 이연규 합동작품), 883x52cm, 한국
포도밭서리새, 2018, 아사천위에 과슈, 아크릴릭인크, 아크릴스프레이, 먹, 44x145cm, 한국

SELECTED IMAGES



SELECTE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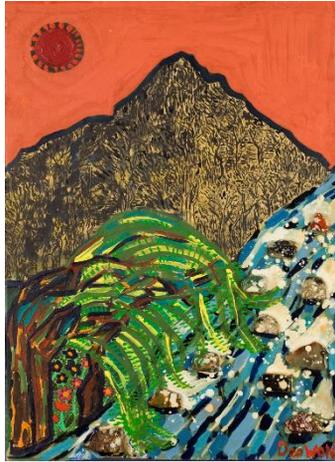


SELECTED IMAGES



사진찍는 박스 안 자화상, 2015, 파키스탄 면천 위에 인도슈바장난감, 고장난 카메라, 카라치수성페인트, 과슈, 유성 금분, 한국

SELECTED IMAGES



새와 함께 트레킹 끝자락에서, 2015, 네틀천에 돌오브제, 과슈, 울실, 200x38cm(40호), 한국
 빙하계곡고속류도, 2015, 네틀천에 혼합재료, 돌 오브제, 버튼오브제, 먹, 과슈, 200x38cm(40호), 한국
 응계in잡초도, 2017, 태국산 애플그린색 코튼 위에 먹, 과슈, 103x1035cm(50호), 한국



초록산수, 2015, 네팔산 헴프 카펫 위에 먹, 혼합재료, 505x345cm(8호), 한국
 까마귀슬래잡기, 2015, 네팔 포카리산 네틀천 위에 먹, 아크릴스프레이, 단추, 48x34cm(10호), 한국
 가마우지 벌싸움, 2019, 미얀마산 나무판에 먹, 과슈, 아크릴릭잉크, 605x405cm(10호), 미얀마

SELECTED IMAGES



루비행성탐사선도, 2010, 파키스탄 면천 위에 루비원석, 과슈, 금분, 울실스티치, 파키스탄
부디헬리콥터+피아니스트, 2015, 네틀천에 혼합재료, 돌 오브제, 단추, 먹, 과슈, 200x38cm(40호), 한국



달밤맹호도, 2016, 파키스탄 실크 위에 먹, 과슈, 실, 단추, 75x405cm(12호), 싸이, 태국
월양대표아적심도, 2018, 아사천 위에 캔즐(유성젯스) 과슈, 카라치산 수성페인트, 65x91cm(25호), 한국
칼라폴버드산책, 2017, 5네팔 포카라산 네틀천 위에 젯소 스프레이, 오일 파스텔, 48x34cm(10호), 한국

SELECTED IMAGES



죽림충도, 2018, 1980년산 한글연습용 종이표지판위에 먹, 아크릴, 51x38cm(8호), 한국

부다의화원산책, 2018, 크래프트지에 혼합재료, 29.8x21cm(1pc),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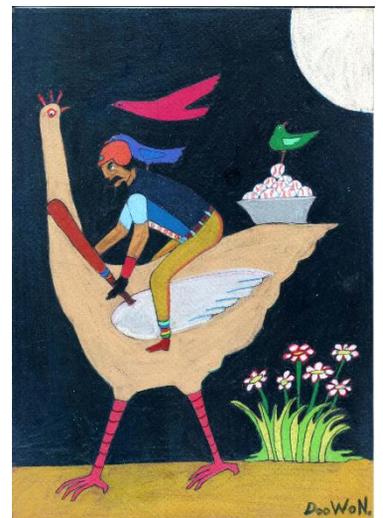
낙엽, 2019, 크래프트지위에 오일색연필, 아크릴릭인크, 그로스바니슈, 58x21cm(2pcs), 제주

블랙스완, 2019, 크래프트지위에 오일색연필, 아크릴릭인크, 그로스바니슈, 58x21cm(2pcs), 제주

SELECTED IMAGES



부다카트라이더, 2017, 크래프트지에 오일색연필, 21x29cm(1pc), 한국
 크림색올빼미, 2017, 크래프트지에 오일색연필, 잉크, 58x21cm(2pcs), 라자스탄, 인도
 십팔화기도, 2017, 종이에 오일색연필, 잉크, 58x21cm(2pcs), 라자스탄, 인도



다색섬숲, 2016, 크래프트지에 오일색연필, 29x21cm(1pc), 한국
 새와같은다색숲스케이팅, 2017, 크래프트지에 오일색연필, 29x21cm(1pc), 한국
 거새와야간타격연습, 2016, 크래프트지에 오일색연필, 29x21cm(1pc), 한국

SELECTED IMAGES



두원자화상, 2019, 인도산커리접시위에 먹, 과슈, 36x36cm, 델리, 인도

티비로 점보는 남자, 2019, 크래프트지에 미얀마산 엔틱시계 부품, 혼합재료, 59x21cm, 미얀마

오르골 피아니스트, 2019, 인도산쟁반위에 미얀마산 오르골라이터 케이스, 과슈, 35.3x21.5cm, 델리, 인도



기계적물고기, 2013, 조지아산접시위과슈, 오브제, 27x65cm, 조지아

잠을 깨우는 야간 비행, 2019, 미얀마에서 구한 오래된 호텔 벨에 아크릴 페인팅, 10.6x8.5cm, 미얀마

빛쟁이 말도 물은 마셔야지, 2019, 인도산 메탈 접시 위에 아크릴 빛, 44x14.5cm, 델리, 인도

SELECTED IMAGES



돼지 잠수부 점심식사, 2018, 인도산 낙타울에 혼합재료, 712x1176cm (50호), 2019, 델리, 인도
버드 굴뚝 피아니스트, 2018, 인도산 낙타울에 혼합재료, 926x1405cm (60호), 2019, 델리, 인도
우주탐사선도, 2019, 미얀마산 종이에 혼합재료, 42x298cm (2pcs), 미얀마
우주로 가는 부다, 2019, 미얀마산 종이에 혼합재료, 59.6x21cm (2pcs), 미얀마

자연으로 문명 이끄는 유쾌한 하이브리드

이두원의 작품에선 마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연적응의 힘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두원의 자연적응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을 보는 방식에서 변형, 왜곡, 강조를 선택한다. 둘째, 대비와 위트를 중심으로 코믹성을 제시한다. 셋째 여러 문화의 성과들을 차용한 문화적 혼종(hybrid)을 지향한다. 넷째, 이두원의 작품에는 즐거운 놀이성이 깃들여 있다.

먼저 자연과 생태를 보는 방식에서 변형, 왜곡, 강조의 선택은 동물 그림에서 잘 나타난다. 새 그림이 주는 크기, 모양은 실제와는 다른 것이지만 그 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또 칫솔이라는 오브제를 사용하여 포식자로서의 새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두원은 오브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기린, 풍뎡이, 강아지들의 생태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사실성의 획득'이라는 역설이 가능한 것도 오브제의 효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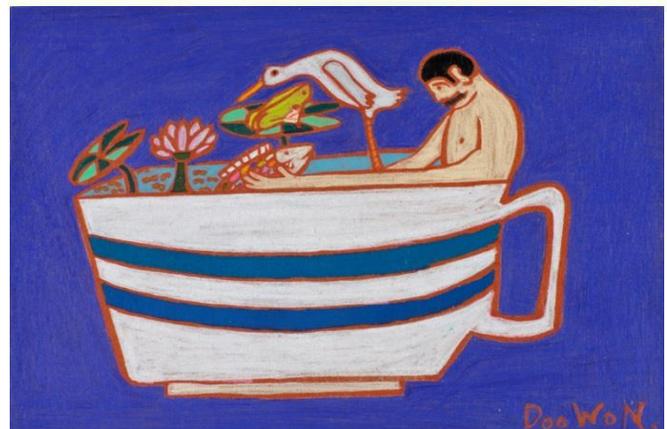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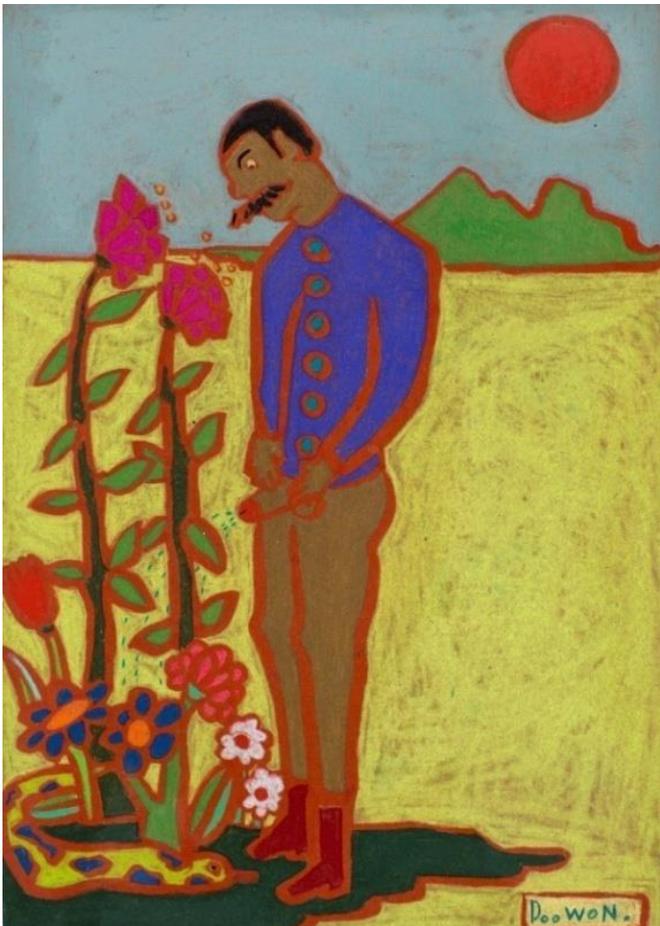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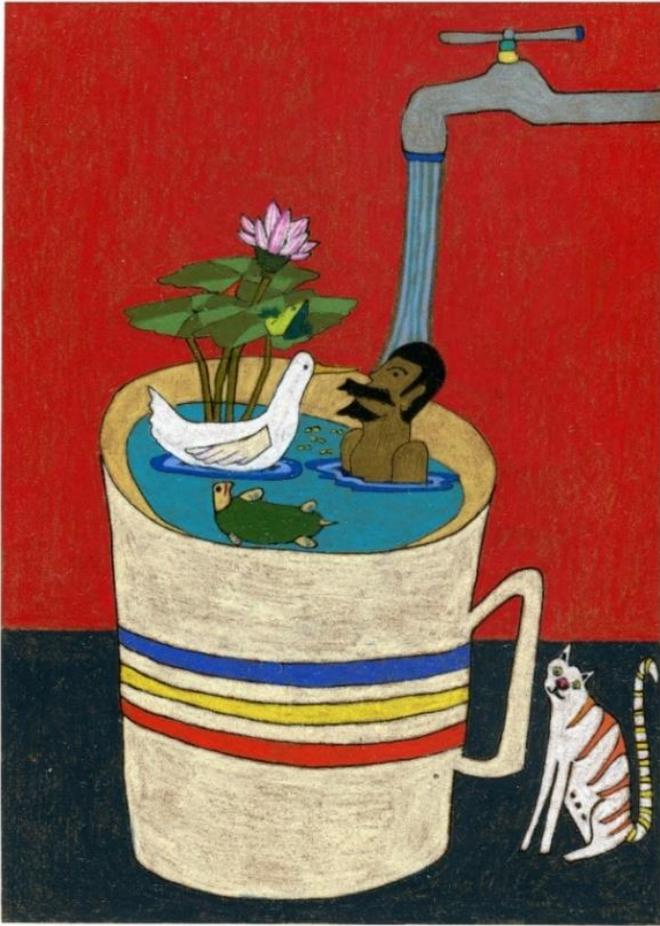
둘째, 이두원은 대비와 위트의 방법으로 코믹성을 펼친다. 개구리를 피아니스트나 붓다에 대비하거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여 새를 날벌레 사냥꾼으로 그린다. 벌레와 노는 고양이의 무료한 일상, 바위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새 비서를 둔 도인, 삼원색의 색상도를 물고기와 자라로 꾸민 <수중삼원색도>, 총 한 자루로 동물을 사냥하고 물고기까지 낚으려는 <이중목적도>, 작은 고기를 삼키려는 큰 고기의 <목색대어점심식사도>, 화가의 일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무질서실내배치도> 등 동양의 화제(畫題)를 패러디한 재치는 사색의 발랄함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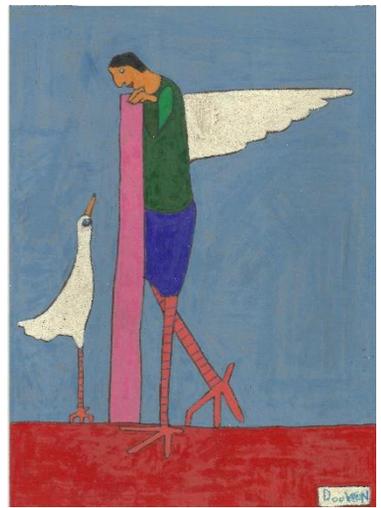
셋째, 이두원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재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두원의 도상에는 여러 국가의 문화적 성과들이 담겨 있다. 그는 문화적 혼종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그가 엮어내는 혼종은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적 발판이 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두원은 타자의 경험을 수렴하고, 다른 세계의 문화적 상징들을 여과하여 자신의 예술적 기표로 삼고 있다. 다른 세계에서의 다양한 여행 경험이 그에게 자유로운 예술적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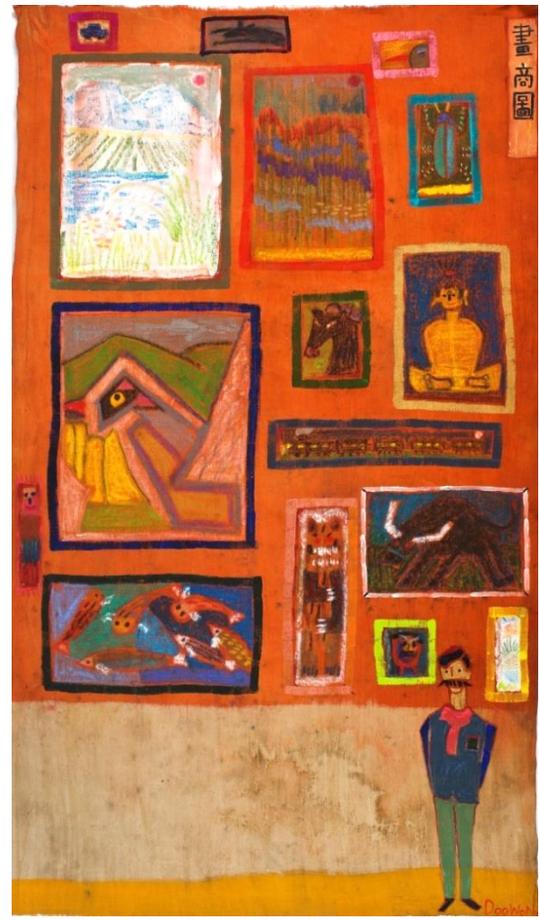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두원의 작품에는 놀이 요소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그의 기발한 위트는 잔잔한 코믹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웃음의 내용들은 현실에 무수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의 그림들을 보노라면 순간순간이 즐거워진다. 이런 점에서 이두원의 작품은 사회에 건강한 웃음을 제공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두원 작품의 매력은 문명을 끌어안은 채 자연으로 뛰어드는 유쾌한 야생의 외침에 있다고 하겠다. 각종 오브제가 결합된 질료미,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터치에 의한 표현미, 생략과 강조를 투영하는 구상적 형식미는 이두원의 예술성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미감들이다. 이런 이두원의 미감들은 동양과 서양,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정의 하이브리드로서 묘한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가벼움, 밝음, 명쾌함, 따뜻함으로 표현되는 미적 즐거움은 도덕에 지배되는 일상을 전복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도덕은 형식을 결정하고 그것을 강제하며 규칙을 가지게 된다.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어떤 범주와 체계를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응고된 아카데미, 한 사회 체제에 순응하는 보수적인 예술이 돼버린다. 이두원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야말로 도덕적 세계에서는 하나의 반란이고 무수한 일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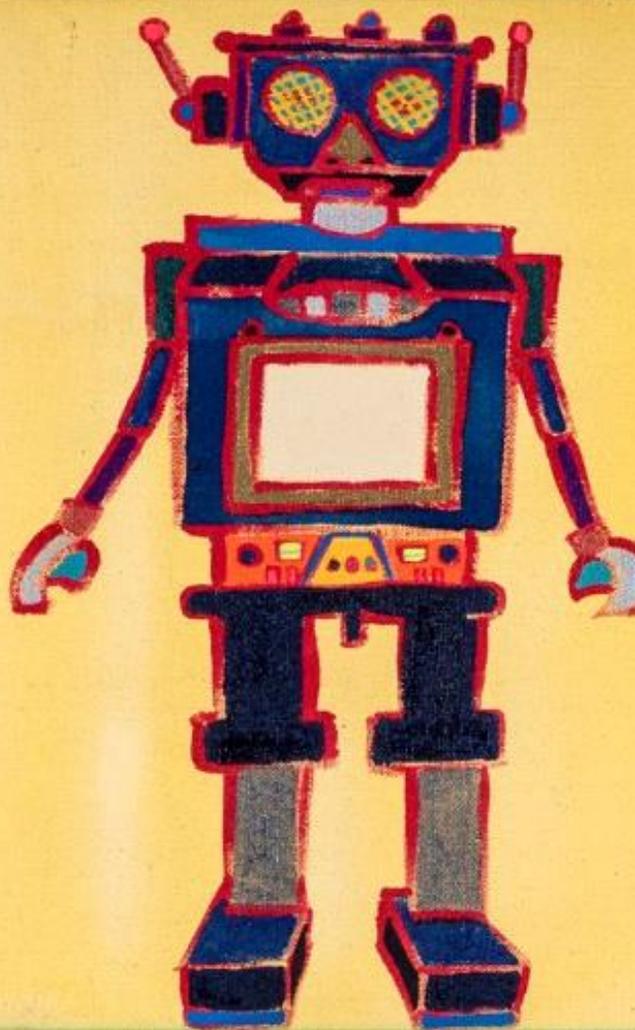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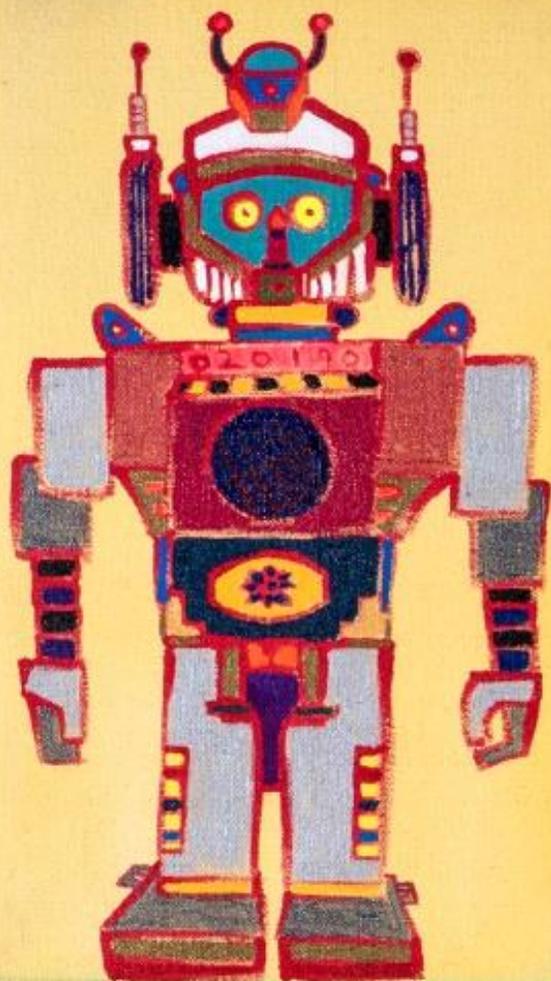






A R T W A
E N S E M B L E

www.artwa.net
info@artwa.net



ARTWA
ENSEMBLE